



미추홀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발행인 | 황영선 | 편집인 | 전미옥, 조덕환, 김석중, 윤현주, 김용운, 김주원, 이재영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영창로 97(주안5동 22-59) | 전화 | 876-8181 | 팩스 | 876-8416 | www.michu.or.kr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제35호 (매월발행)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 동반자가 되어 함께할 10년을 생각하며]



2015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 사회복지 실천'의 비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지혜로운 시민 양성, 나눔문화 확산'의 미션을 가지고 2015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함께한 발자국(도약단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조직역량강화, 대외적위상강화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복지관 프로그램실의 개편과 기능보강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역복지 커뮤니티 공간인 명상쉼터를 개방하였으며, 아이들의 심

리·정서·발달 등에 관한 전문적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미추홀아동발달상담센터의 치료실을 확대하였고,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들의 학습지도, 다양한 특기교육을 통하여 또래집단의 문화를 체험하는 방과후교실 등의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번 환경개선 과정은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의 편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변화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직원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직무능력을 세분화 하였다. 또한 외부기능보강사업에 선정이 되어 이용자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 된 기관의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고충과 복지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

견해를 설치하여 복지관의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3대 사업 중심의 활성화와 함께 남구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구 지역 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외 사회복지 유관기관, 병원, 사회적기업, 직능단체 등과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역주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빛어낸 결실(성장단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가꾸며 주민의식과 정주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에 힘썼다. 그 중 일 반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모임 '주부9단'은 나 보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정기적으로 보살 피는 지역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부9단은 2016년 6월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됨과 동시에 비영리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독립적인 주민조직체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보였다.

사례관리 권역 7개 행정동의 각 동별 통장으로 구성된 '두레지기'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의뢰하여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두레지기는 최근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중인 '동북지허브사업'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족' 보다 3년 앞서 이웃을 찾아가고 보살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지역사회 문제를 예측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뛰어난 능력과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웃관계 문화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자'로 발전한 우수사례로서, 인천시 시민 네트워크의 선행 모델로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상생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함께, 전문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운영법인의 특성에 맞추어 특화사업으로 인천시 및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관 내에 도예용 가마를 포함한 전문도예용품을 갖춘 보리수공방을 개소하였다. 보리수공방에서는 아동반, 성인반, 어르신반 등 다양한 계층별로 전문적 도예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단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도예교실은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소근육 운동과 함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지관의 운영방향과 프로그램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도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의 달 행사, 김장나눔 행사, 어르신위안잔치 등의 프로그램은 복지관 대상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과 함께 했으며, 지역 내 신규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개발하여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조성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복지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지역사회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이전보다 다양하게 남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연합하여 진행하는 사업들이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인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최초로 남구 내 위치한 세 곳(미추홀, 송의, 인천)의 종합

사회복지관이 함께 조직·운영 중인 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각 복지관에서 지역조직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남구지역조직연합'은 정기적으로 지역 조직사업에 대한 연구, 각 기관의 정보와 자원공유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여 지난해에는 남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합 욕구조사와 결과발표회를 통해 욕구조사결과 및 향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방향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이례적인 업적을 남겼다.

이처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주민과 동반자가 되어 함께할 10년 (대외적 위상강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 공간, 시스템을 기본가치로 하는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성숙한 지역복지시스템운영, 기관브랜드 가치창출, 조직몰입감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업무에 맞는 교육 및 연수를 적극 지원하여 직원들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복지시스템운영을 통해 남구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을 발굴하여 복지관에서 원스톱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 내 홀몸어르신 가정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홈케어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남구지역 내 연합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복지수요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주민전문교육 강화와 다양한 어르신 동아리사업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동북지허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흥남면옥



아이들한테 왕갈비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주안5동에 위치한 흥남면옥은 이동갈비와, 왕갈비가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입니다. 고기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밑반찬을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굵은 도라지 무침은 고기랑 함께 먹으면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며 맛을 고기의 달달한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물론 도라지무침 이외에도 여러 상식한 채소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쌈을 즐기시는 것 어떨까요? 특히 흥남면옥의 왕갈비는 연하고 부드러우며 일품이라는데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갈비를 가족들과 즐거운 외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꿀팁! 흥남면옥에서는 갈비포장판매를 30% 할인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함께 가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선물로 사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예약문의 : 032)441-1444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21-12

황금오리



수고한 내 몸을 위해 건강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건강 보양 오리 음식점!

※ 2013 맛있는 집 경연대회 최우수상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황금오리는 무더운 한 여름날 우리들의 몸에 건강한 보양식이 될 맛있는 오리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오리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보양 음식으로는 능이버섯 오리 백숙이라고 해요. 오리백숙이라고 해서 기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금물! 일단 드셔보시면 그 곱감함에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기관지·천식·감기·산후병·콜레스테롤·산화·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암에 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입니다. 백숙을 다 드시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맛있는 백숙죽 한 그릇의 여유까지 즐기고 오시면 됩니다.

☎ 예약문의 032) 861-2010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8(주안동)

감자탕을 만드는 형제들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푹 끓여 부드러운 돼지등뼈와 우거지가 어우러진 뼈해장국 한 그릇 맛 볼 수 있는 음식점!

주안 5동에 위치한 감자탕을 만드는 형제들은 술 먹은 다음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먹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푹 끓여 부드러운 돼지등뼈와 우거지가 어우러져 있는 뼈해장국 한 그릇 하면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나죠? 푹 잘 익은 등뼈는 굳이 손으로 잡고 뜯지 않아도 살이 찝삭 분리돼요. 그렇다고 또 살이 으스러지도 않고 딱 적당한 고기의 맛! 어느 정도 살코기를 골라먹다가 역시 뼈해장국은 밥을 말아먹어야 제 맛이겠죠? 감자탕은 이렇게 먹어줘야 제대로 먹어준 느낌이 나죠. 밥을 먹고 나서 각자기 까지 먹어주면 입 안이 개운해지는 느낌!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찾아와서 드셔보세요!

☎ 예약문의 : 032) 872-397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4-75 1층



복지관 소식



제94회 정기사례회의

- ▶ 일시 : 2017년 1월 9일(월)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3층 소강당
- ▶ 내용 : 사례위원 자문을 통한 사례대상자 개입방법에 대한 회의 진행



스파게티 나눔 행사

- ▶ 일시 : 2017년 1월 11일(수)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식당
- ▶ 내용 : 잔치부채 후원을 통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 아동과 장애주간보호센터 장애아동 50명 스파게티 나눔 행사



학익고유스봉사단 밀반찬 배달

- ▶ 일시 : 2017년 1월 14일(토)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내용 : 학익고 유스봉사단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배달



방과후교실 체험활동 인천어린이과학관 견학

- ▶ 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 ▶ 장소 : 인천어린이과학관
- ▶ 내용 : 방과후교실 아동 어린이과학관 체험활동



미래를 움직이는 힘 2017청소년 자원봉사학교

- ▶ 일시 : 2017년 1월 16일~18일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내용 : 복지관 내 환경미화 및 자원봉사 교육 진행



사단법인 미추홀공덕회 소식

어린이그림책도서관 건립을 위한 100원의 기적 제2차 회향식 정월대보름(2월 11일)진행



제2차 회향식 정월대보름(2월 11일)진행

미추홀공덕회는 어린이그림책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지난 21일 동짓날 회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어주시는 돼지저금통을 열어 최종 4,178,26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모금액은 잘 적립하여 1.3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동짓날 회향 후 들어오는 돼지저금통의 문의가 많아 이번 정월대보름에 제2차 회향식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집에서 자고 있는 돼지를 밥상에 올리고주세요.

운영사찰 수미정사 소식

(사)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법회 화합과 소통, 정법, 불교복지 실현을 당부하시는 이임사



2017년 1월 13일 (사)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법회가 약사사 대웅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제 27대 28대 회장 수미정사 회주 종연스님이 이임하시는 축하 법석이었으며, 제 29대 회장으로 지원사 주지 일초스님이 취임하시는 법석이었습니다.

20여개 종단의 스님들께서 참석하시고 인천시장 유정복님을 비롯하여, 지역의 정, 재계 내빈들과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 법회였습니다. 이날 이임사에서 회주 종연스님은 화합과 소통, 정법, 불교복지 실현을 당부하시며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정법의 길을 강조하시고 부처님이 좋은 일은 발행하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소외된 이웃과 손잡고 가는 모습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유정복 인천 시장은 종연 스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길 기원했고, 새얼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불교가 마음과 행이 있어야 한다.' 고 실천을 다짐하시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꼭 위 네 가지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과 신년하례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17 교육문화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시간	수강료
이동중국어	원어민에게 배우는 중국어교실	초등학교 1~3학년	수 15:00~16:00	2만원 (교재비별도)
이동도예	코일링, 핀칭, 성형틀작업 등을 이용해 다양한 도예	7살부터 가능	월 16:00~17:00	4만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성인도예	작품 만들기	성인, 어르신	수 14:00~15:00	소성비 포함
줄리댄스	스트레칭과 리턴댄스를 혼합한 스포츠 댄스	성인	월~금 13:00~14:00	
스마트폰교육	스마트폰 기본조작 및 어플 활용교육	60세이상	화, 목 11:30~13:00	무료
건강체조	쉽고 재밌는 동작으로 즐기는 운동	어르신	월~금 14:00~15:00	

알짜배기 소식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주식거래소 "아동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황주섭(가명, 19) 군은 곧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에 들뜬 또래 친구들과 달리 걱정이 앞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주섭 군은 아버지의 경제력이 없어 기초생활 수급가정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양 섭취가 부족해 프래에 비해 왜소하지만 평소 컴퓨터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주섭 군은 학원은 꿈꿀 수 없는 가정 형편에도 학교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가며 관련 대학에 합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그 발걸음을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주섭 군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기부방법 행복주식거래소 홈페이지 접속 (<http://happyexchange.chest.or.kr>) → 도와주세요 클릭 → "아동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클릭 → 기부하기

2017년 달라지는 정부육아지원정책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

2017년부터는 어린이독감 접종도 국가 필수 예방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생후 6개월 ~ 59개월(만5세)의 유아라면 1~2회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

지금까지 아기 출생신고는 해당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만병원이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로 송부할 후 2차적으로 개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임부부 지원 확대 & 남임치료 휴가 신설

기존의 남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확대 실시합니다. 기존의 남임시술비 소득 상한이 폐지되어 그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남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기존 19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남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어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신설 아이돌봄비 서비스 확대

많은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각각 150개씩 신설됩니다. 가정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돌봄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2세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만2세 이하의 아이라면 '아이돌봄 영아돌봄제'의 대상입니다.

2017년 달라지는 인천시



1.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시행

인천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모두 591억원의 예산을 마련, 내년부터 중학생 8만588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인천시교육청과 시·군·구가 6대 4의 비율로 부담한다.



2.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 지원

4월부터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3개월 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정부지원대상에 빠져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에 대해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한다.



3. 출산가정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출산가정에는 이달부터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선물이 지급된다. 모바일 상품권 또는 꾸러미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출산용품 꾸러미는 택배로 발송되며, 생생이는 각각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아가 해당된다.

보리수 도예 공방을 소개 합니다.

- ▶ 보리수 도예공방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인원	대상	교육비	일시
도예의 꿈 (아동도예)	최대 20명	6세 ~ 13세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월요일 17시
도예의 숲 (성인도예)	최대 20명	20세 이상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수요일 15시

- ▶ 장 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수강료 및 이용문의 : ☎032)876-8181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대신! 성실한 수업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편의서류지참)

우리 동네 탐방

사랑으로 북고 행복으로 굽는 (주)다사랑 행복도시락



사랑을 담아 도시락을 만드는 (주)다사랑 행복도시락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추위와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번 1월호에는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 밥 짓고 나서, 그들이 추운 겨울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여 만나고 왔습니다.

인천 남구 한나루로에 위치한 (주)다사랑 행복도시락 직원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행복도시락 노태간 센터장을 만나 그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사랑 행복도시락'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움을 느낀 김병삼 신부가 남구청, ㄱ 행복나눔재단, 실업국복국민운동본부와 함께 2006년부터 시작한 사회

적기업입니다.

현재는 남구, 연수구, 남동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약 800여 명의 아동들과 5군데의 치매센터 어르신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교 센터의 급식을 진행하며 다문화이동들의 급식 또한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사랑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질 수 있게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며 조미료와 소금을 넣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배분한, 1년 식단을 계획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간 센터장은 '결손가정 아동들은 범죄적인 노출에 많이 볼

여 있다고 본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사랑 직원들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단순히 도시락을 전달해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편지 만남을 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정서 발달에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한명 한명 정성을 갖고 배달을 진행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호관할 중에 있는 분들이 나와 봉사를 하며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이들 또한 아이들에게 도시락 속에 깊은 사랑을 배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태간 센터장의 앞으로의 계획이자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도시락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조리 시설 보강과 양질의 음식, 위생문제에 있어 더욱 보강을 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403번길 134(학익동)
전화 : 032)864-4661~2
홈페이지 : www.happydsr.com

전미옥 시민기자

아이의 꿈을 키워요

I can do it .

강인한 태권 소년 소녀들을 키워나가는 - 태권도 사범

이번 달 '아이의 꿈을 키워요'에서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김예성 학생이 꿈꾸는 태권도 사범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주인5동에 위치한 '태권도하는아이들' 박노훈 관장님이 태권도 강사에 대해 친절히 인터뷰해주셨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

Q.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는 현재 주인 5동에 위치한 '태권도하는아이들' 관장을 하며 태권도 아이들을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도자, 선수, 또는 흥미로 배우는 아이들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목적에 맞게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태권도 경기 심판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태권도 강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대한민국 평범한 아이들이 동네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하듯이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동네 태권도장을 다니며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다니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태권도 강사라는 꿈을 가진 어린 친구들이 태권도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태권도 강사와 선수가 되는 방법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시범/지도자 같은 경우 일반 태권도 도장을 다니다가 만20세의 4품이상의 사람이 자격증시험에 합격하면 연수기간을 걸친 후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림픽 때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어릴 적부터 위탁교육을 받아 주기적으로 대회출전을 하며 명문학교로 스카우트를 받는 엘리트 체육인코스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수들은 학교 코치진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훌륭한 선수로서, 국가 대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태권도강사를 꿈꾸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운동선수로서 특성 상 좌절하고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훈련 간 부상을 당할 수도, 시합에 나가 입상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오래하면 할수록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실력이란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조금씩하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긴 여정의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응원합니다.

Q. 태권도 강사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Q. 태권도 강사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남구 주인5동에 위치한 태권도하는아이들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사람들

인천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우리 고장에는 전통과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인천 문화동 인천도호부청사 옆 인천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이 2014년 8월 22일 지하1층 지상 3층, 연 면적 7134㎡의 규모로 국가와 시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 개관하였다.

인천시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한 이유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제작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그동안 등한시 된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인천의 특성상 멀리 떨어진 강화도와 서구는 자체 전수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희망자와 기관을 수용하여 예능 및 기능분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4개 단체와 시 지정 무형문화재 23개 단체가 입주해서 정기적으로 전승교육과 공연,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최정연 교육체험 담당자는 "전승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교실과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체험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며 2016년에는 특히 화강공예, 전통완공예, 단청체험, 전통자수반, 목공예, 단소연주와 제작, 대금, 소금제작과 연주, 지화(종이)꽃 만들기 등 상·하반기 정기 교육



인천 문화동에 위치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체험교실이 열렸고,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장구 배우기, 경기민요, 노동요 배우기, 다례체험 등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의 특별한 만남과 그들에게 배우는 생소한 전통의 실례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수교육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활성화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며 아쉬움도 함께 이야기 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된 날 인천무형문

화재 전수교육관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부산지역 '전국 수학교사 모임' 단청체험 행사가 있었다. 모두를 진지한 자세로 자신들의 작품에 정성을 들여 색깔을 하는 모습은 아이들 못지않게 순수해 보였다. 체험을 진행한 한 교사는 "우리가 배우고 가는 것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라며 의미 있는 대담을 해주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생각하면 지켜가기 힘들다. 특히 그 고장사람들이 먼저 찾아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구도 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장이라는 훌륭한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기관 여러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것 같다.

※ 인천무형문화 전수교육관
문의 : 032-440-8080~7
관람시간 : 개관 09:00~
폐관 18:00
휴관 :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관람료 : 무료

전미옥 시민기자



단청체험행사

동아리 탐방

흥이 넘치는 민족의 희노애락을 노래한다

풍물동아리 '한결'

예부터 주로 민중들 사이에서 희로애락을 나타냈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중 문화 풍물놀이. 그런 풍물놀이를 응원 1.4동이 중심으로 배우고, 공연하는 동아리가 있다고 하여 찾아가보았습니다. 남구에 위치한 학산소극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풍물동아리 '한결'을 찾아 약 10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한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6 남구 미디어 축제 행사중인 풍물동아리 '한결'

Q. 풍물동아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희는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풍물동아리 '한결'입니다. 동아리 이름의 뜻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한결 같이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회원들은 흥이 넘쳐 오롯이 풍물이 풀어서 가 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맑은 분위기로 절대 다툼이 없으며 마치 식구와 같습니다.

현재는 약 15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남구마담예술통아리가 되어 일주일에 두 번 (월,수) 10시부터 12시까지 학산문화원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한결'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연간 약 10여 건의 공연을 펼칩니다. 연중 행사, 제례시장 공연, 구경 행사 등 공연 장소 또한 다양합니다. 요즘은 2월 달에 열리는 연중행사 '지신밟기'를 연습 중에 있습니다. 연습은 평소엔 두 번 정도 진행하

는데 요즘같이 행사가 있다면 동아리 회원들과 이야기하여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모여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공연과, 훌륭한 흥이 넘쳐 오롯이 풍물이 풀어서 가 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맑은 분위기로 절대 다툼이 없으며 마치 식구와 같습니다.

관객들이 저희에 공연을 보고 함께 즐겨주시면 부딪힘과 보람을 느끼며 연습할 힘을 얻고 갈 수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2016년 남구미디어축제 때 진행했던 마당극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응원 1.4동이 나누어지게 된 계기를 풍물놀이 형식으로 재해석한 '사물악기'가 된 도깨비II'를 공연했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털과 옷을 직접 만들며 주민들 간의 단합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Q. 동아리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응원 1.4동 풍물놀이와 학산문화원에서 물심양면으로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 저희를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께 많은 보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주변의 격려와 지지, 또한 항상 응원해주시는 관객들이 계시기에 즐기며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희의 공연으로 인해 응원 1.4동 동네의 흥이 넘치는 주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한 저희의 공연이 남구 전체로 뻗어나가 지금보다 더욱 큰 무대에 서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Q.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한결'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동아리 안에서 본인들의 넘치는 끼와 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남구 지역 주민들의 방문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 남구학산문화원

☎ : 032-866-3993~4



마당놀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